

## 송도에서 월드클래스 쇼핑의 즐거움을 맛보다

### 글로벌 쇼핑몰 개발기업, 티브먼 아시아

오랜기간 동안 미국의 쇼핑센터 업계 Top 20위 안에 랭크되어 온 세계적인 쇼핑몰 개발기업, 티브먼 센터의 아시아 본사 티브먼 아시아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에 글로벌 쇼핑센터를 조성한다.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될 이 쇼핑센터는 세계적인 감수성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 월드클래스 몰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쇼핑, 음식, 놀이를 재료로 프리미엄급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기업 티브먼 아시아. 그들이 지어낼 꿈의 향사전을 그려본다. 지료철조, 티브먼 아시아

### 프리미엄급 인터내셔널 쇼핑센터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에 105,000㎡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 프리미엄급 인터내셔널 쇼핑센터가 2010년 들어선다. 약 150개 전문 브랜드가 입점할 이 센터에는 백화점, 대형 마트, 9개 상영관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 링크 및 1,200㎡의 푸드코트가 조성된다. 또 월드클래스 브랜드들이 개별 매장으로 나란히 입점되어 세계적인 쇼핑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센트럴 파크', '동북아 트래이드 타워', '컨벤션 센터'와 마주하고 있는 만큼 건축 디자인 역시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이미 한국 내에서 삼성동 아이파크 타워의 설계를 담당한 바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가 설계를 맡아 '바위와 자갈 사이로 흐르는 곡류', '반짝이는 빛과 환기할 공기' 등 한국적인 자연풍경과 도시적인 개성을 아름답게 조화시킨다. 실내 디자인 역시 세계적인 최고의 디자이너 베노이(Benoit)가 맡아 환상적인 쇼핑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높다. 머지않아 인천 송도의 새로운 쇼핑 랜드마크로 부상할 이 프리미엄급 쇼핑센터를 인천 송도 땅에 조성하고 있는 곳은 글로벌 쇼핑몰 개발기업인 티브먼 아시아다. 티브먼 아시아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쇼핑센터 부분의 파트너로, 추후 쇼핑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의 개발, 임대 및 센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Beverly Center

명품과 중심가 상류층 믹스 앤 매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비자 중심의 쇼핑 문화를 선도해가겠다는 것이 티브인 아시아의 목표이자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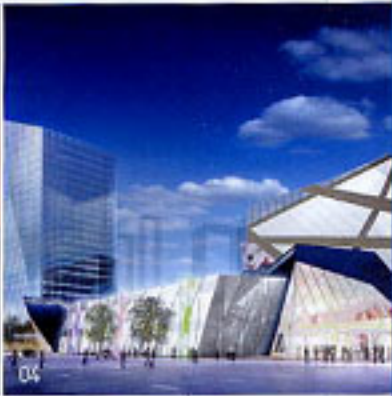
02

## 50년간 미국 쇼핑업계를 이끌어온 주역

티브인 센터는 오랜기간 동안 미국의 쇼핑센터 업계 Top 20에 안에 랭크되어 왔으며 그간 루이비통, 비비리, 샤넬, 구찌, 아르마니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 오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비즈니스사업을 성공기에도 올라올았다. 실제로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NYSE: TCO), 미국 11개 주에서 21개의 면적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쇼핑센터를 운영해왔다. 티브인 아시아는 티브인 센터의 아시아 본사로 홍콩에 위치하고 있으며, 쇼핑센터 개



03



04

발, 디자인 및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유통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 권리를 맡고 있다. 티브인 아시아 대표 모건 파커는 "한국의 쇼핑시장은 그동안 고객 선택의 기회를 줄이고, 쇼핑 자체를 즐기게 보다는 신속한 구매를 우선시하는 오류를 범해왔다"며 "티브인이 개발하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쇼핑센터는 세계적인 명품과 중저가 브랜드를 다양하게 입점하고, 각 브랜드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족감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명품과 중저가 상품의 믹스 앤 매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비자 중심의 쇼핑 문화를 선도해가겠다는 것이 티브인 아시아의 목표이자 계획이다.

## 월드클래스 쇼핑 중심지로의 부상

티브인 아시아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쇼핑센터의 입지조건이 완벽하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쇼핑을 오픈 시키고 더불어 연정개발 및 인천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과 바로 연결되는 연결대로, 그리고 제 3강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등 편리하고 다양한 교통 시설이 이를 실감하게 한다. 송도와 서울, 경기지역의 거리 1시간 교통권으로 단축되면, 2,300만 명 이상의 수도권 거주민들이 송도로 모여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눈부신 성장이 점쳐지는 지금, 5,0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한국인들이 4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어 단일 여행지로서의 잠재력 또한 충분하다. 고객을 위한 맛송 쇼핑, 맛갈 나는 음식, 유쾌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게 될 송도국제업무단지 쇼핑센터, 세계적인 즐길거리를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티브인 아시아의 꿈이 커질수록 송도에서 월드클래스 쇼핑의 즐거움을 맛보며 웃는얼굴을 볼 일거리일 날이 머지않았다.

1. 로스앤젤레스 베벌리센터 (Beverly center)
2. 마이애미 돌핀몰 (dolphin mall)
3. 티브인 아시아 대표 모건 파커
4. 송도국제업무단지 쇼핑센터 조감도